

‘한국 고인쇄사’ 저술 세계 각국에 홍보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민족이 세계에 내세울 만한 유산은 단연 인쇄문화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1991년 우리나라가 UN에 가입할 당시 '월인천강지곡 인쇄동판'을 기증한 것도 우리의 인쇄문화가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뒤지지 않는 인쇄 종주국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남들이 엄두도 못 내던 시절에 일구어낸 인쇄종주국의 칭호는 1972년 프랑스 파리 국제도서전이 열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닌 '구텐베르크'의 나라 독일의 것이었다. 1972년, 스스로 최고를 자임하던 인쇄종주국 독일의 위상을 변화시킨 사건이 발생했으니 '유럽 동양학회 100주년 기념 책 전시회'에 당시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 우리나라에서 인쇄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 출품된 것이었다.

직지를 출품해 세계 금속활자인쇄 역사를 새롭게 정리한 인물은 프랑스 국립 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박병선 박사(78)였다.

우리에게 인쇄종주국의 위상을 안겨준 '직지'가 발견된 것이 이 보다 4년 앞선 1968년의 일이다.

1955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한 박 박사는 '민족을 위해 큰일을 하라'는 집안 어른들의 배려로 도불(渡佛), 파리 제7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이후 1967년부터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근무 중이던 박병선(78)박사는 그 해 마침내 직지와 만남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고문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했던 관계로 직지가 구텐베르크의 성서인쇄보다 빠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다.

박 박사는 자칫하면 허송세월이 될 수도 있는 직지의 발간일을 밝히는 데 3년 동안 매달렸다. 이미 서양 중심의 인쇄역사에 익숙해져 있는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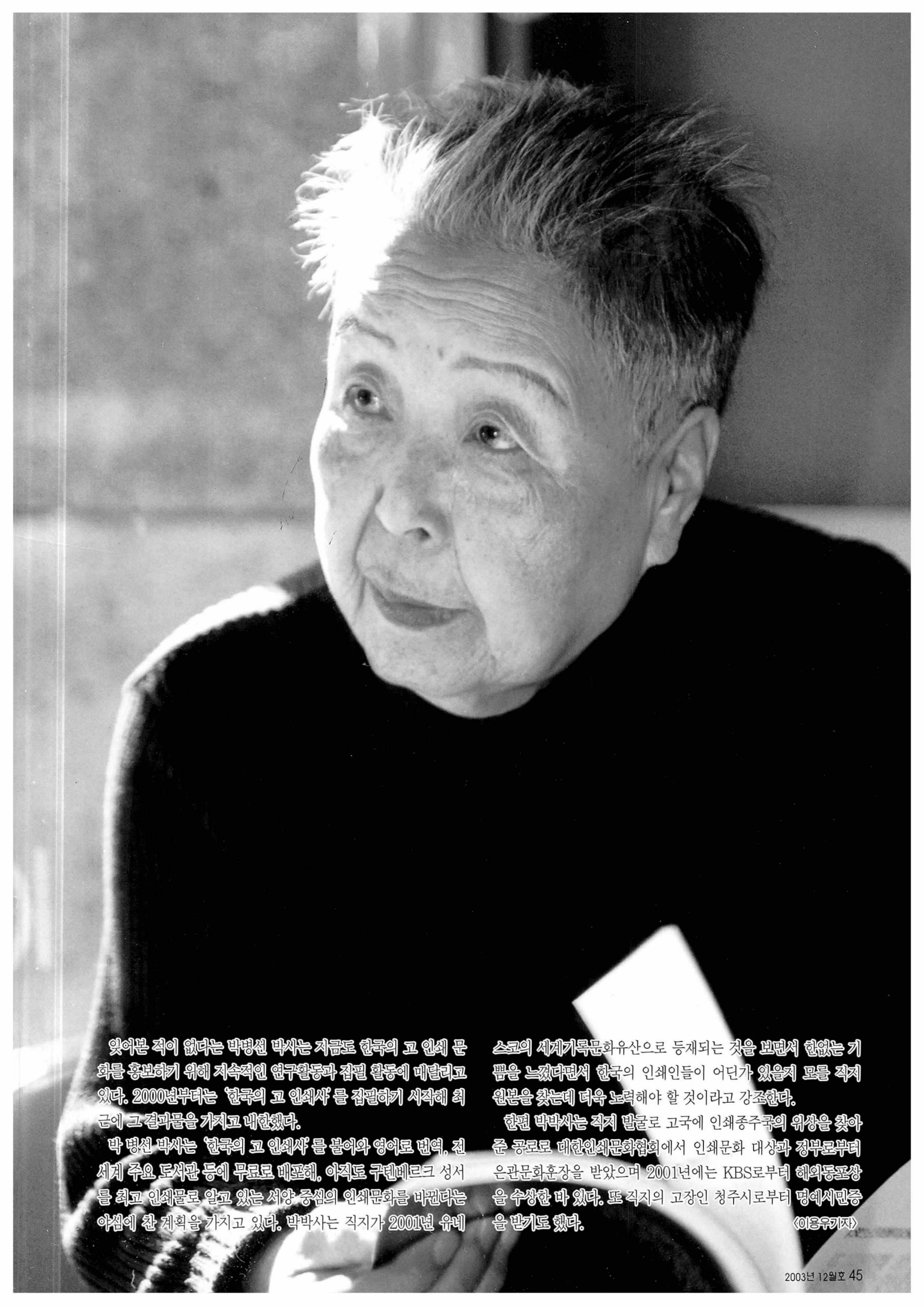
린 직지의 발간일을 찾는 일은 1972년이 되어야야 끝이 났다.

박 박사는 당시에 대해 "직지를 발견한 일도 더 없이 행복한 일이었지만, 동료들의 달갑지 않은 시선 속에서 직지의 발행일을 찾아낸 순간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내 생애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이후에도 1973년 직지 촬영 필름을 국내로 반입해 국내에서도 영인본 이나마 직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는데, 당시 박 박사가 가져온 직지 촬영 필름에 대해 고인이 된 육영수 여사는 한없는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한다.

1972년부터 프랑스 국적을 획득,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박병선 박사는 지난 1980년까지 직지가 발견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근무하다 1980년 이후에는 끌레이드(왕궁 고문학원)에서 왕실고문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국적이 프랑스로 바뀌었지만 자신이 태어난 조국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는 박병선 박사는 지금도 한국의 고 인쇄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집필 활동에 매달리고 있다. 2000년부터는 '한국의 고 인쇄사'를 집필하기 시작해 최근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한했다.

박병선 박사는 '한국의 고 인쇄사'를 영어와 영어로 번역, 전 세계 주요 도서관 등에 무료로 배포해, 아직도 쿤텐베르크 성서를 최고 인쇄물로 알고 있는 서양 중심의 인쇄문화를 바꾼다는 야심이 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박박사는 직지가 2001년 유네

스코의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을 보면서 한없는 기쁨을 느꼈다면서 한국의 인쇄인들이 어딘가 있을지 모를 직지 원본을 찾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박박사는 직지 말글로 고국에 인쇄종주국의 위상을 찾아 준 공로로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 인쇄문화 대상과 정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받았으며 2001년에는 KBS로부터 해외동포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 직지의 고장인 청주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기도 했다.

(이음유기자)